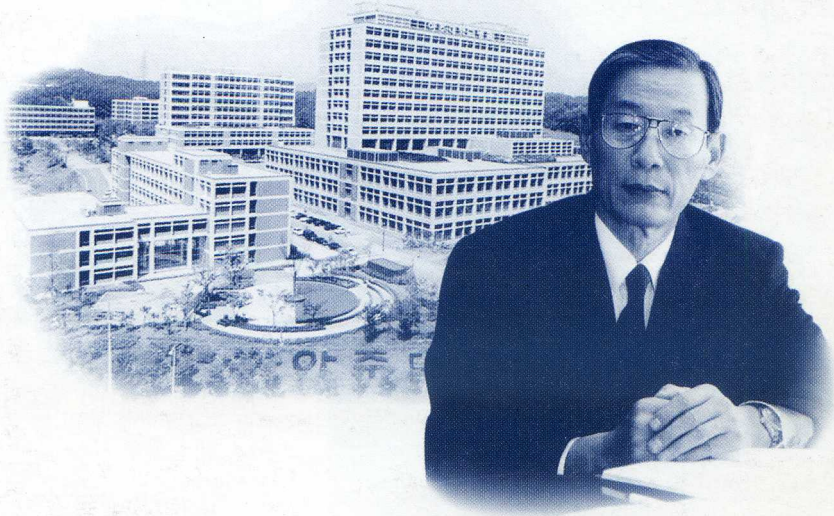


• 목 차 •

- 2 의학리포트
체장염 발생에 자기면역반응이 관여
- 3 선인재 칼럼
후시 직업병은 아닐까
- 4 진료교실
즐음,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 6 나의 연구, 나의 테마
외과역사가 아나있나요?
- 7 잊을 수 없는 환자
「뇌사, 장기이식, 허먼 떠오르는 분
- 8 AMCNEWS
- 12 의과대학 둘러보기
교 학 팀
- 13 Net, Net, Generation
간호학부, 현은이의 실습일기
- 14 부서탐방
해의학과
- 16 건강 Q&A
- 17 신간안내
이종찬 교수의 한국에서 醫를論한다
- 18 내가 꿈꾸는 의료인
환자를 내몸과 같이 사랑하고
- 19 우리 병원 어떨습니까?
함께 가는 우리를 아십니까?
- 20 자원봉사 활동
정신과 낮병동
- 21 노벨의학상 수상자
페리드 무라드(1998년)
- 22 의료장비 소개
인공, 엑시머레이저 도입
- 23 의료원 24시
의료원서비스센터
- 24 칼럼이 에세이
병원문화에 대한 나의 생각
- 25 잘못된 건강상의
견역
- 26 응급처치, 이럴뎐 이렇게
알레르기
- 27 진료시간표

제4대 강신영 의료원장 취임



아주대학교는 제4대 의료원장에 姜信榮 병원장을 4월1일부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아주대학교 김덕중 총장이 2월 취임사에서 의료원의 독립체제운영이 의료원에 힘과 용기를 실어주는 것이라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 예상되어 왔던 일이었다. 따라서 의료원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의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신임 강신영 의료원장은 「새천년이 시작될 때 전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울헤가 우리 의료원에 희망의 해,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원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가지 대립과 여러 의료환경의 변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모두 한마음되어 다시 일어서는 지혜(wisdom)와 용기(courage)가 필요할 때이다. 부서와 부서, 위 아래 사이에서 서로 한번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자신이 다른 자리에 한번 서보면서, 우리 공동체와 삶의 터전의 앞날을 생각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때이다. 새생명의 계절, 따뜻한 속에 화합의 계절인 4월에 본인이 의료원장직을 맡으면서 소망이 있다면 안정과 화합속에서 변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슬기롭게 일어설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의료원 가족 한사람 한사람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며 건투를 빈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강신영 의료원장은 수부외과 전문의로 미국 디트로이트 소재 웨인주립대학에서 25년간 교수로 봉직하고, 지난 1995년 아주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후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제4대 병원장으로 근무해왔다. 강신영 의료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02년 3월31일까지이다.



